

3대 오로지 전문 수재 직설채널을 곁들여는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 지정 한국신물식품개발사업체
• 우리 차문화의 자부심을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율 100%)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비리가 없으면 모은금리로 내릴때는 약정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의료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태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고귀한 육은 땅속에서 나고
정정한 계(戒)는 선행에서 나온다.
(열반경)

법회 안내

- 석불사 (02)712-1765
- 석불사법회 1·3주 일 오전10시
장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광주 만덕사 (062)652-4920
- 연중법회 매월 1~3주(일) 오전10시
월중법회 매월 7주(일)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주(일)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주(일) 오전10시
창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 광주 관음사 (062)223-7666
- 거사법회 매주 일 오후7시
창년법회 매주 일 오후8시30분
고승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인천 성불사 (032)541-5800
- 초하법회 매월 1주(일) 오전10시
성심법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중·고승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해진선원 (032)693-3326
- 초하법회 매월 1주(일) 오전10시30분
보통법회 매월 1주(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 대구 구도회 (053)654-8533
- 장안법회 매주 토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아장년법회 매월 마지막주 토
대구 공덕원(053)741-0077
- 거사법회 매월 첫째 금 오후8시
창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범종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정상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佛放사태’ 1년 6개월... 방송 質저하 우려

사장선임 이해없혀 결론 못내



공공매제이며 교계 최대의 전법기관인 불교방송이 지난 10월 31일로 사장직무대행을 겸임해온 이사장 종하스님의 임기가 끝나 '사장 공석'이라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처하면서, 그 어떤 명분일지라도 더이상 정상화를 미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당초 교계 한 신문의 보도가 사와 관련 양측 언론사 관계자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야기된 불교방송 문제가 정규프로그램에 나간 PD회의의 성명 방송으로 그 파문이 조계종으로 급비화되면서 1년6개월 넘게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태호사장의 사회 강행발전주의 해임등 대폭적인 인사 단행과 방송의 질저하 비난, 나아가 교계 각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까지 파장이 확대됐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불교방송의 정상화를 주도해나갈 새 사장선임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볼 초미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불교방송 사장은 불교진흥원이 추천한 후보를 법안이사회에서 의결토록 되어있는데, 불교진흥원은 9월 22일사장후보로 정동호의원을 추천해 놓고 지난 10월 28일 "조속한 시일내 이사회를 개최해 달라"는 공문을 불교방송 재단사무국에 냈다. 그러나 불교방송 이사회는 3일 현재 열리지 않았다.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이사회를 열어 전 종도가 수긍할 수 있는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사장의 선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교방송 관련 주체들이 나름대로 인물 찾기에 부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조계종 이사, 방송특위 스님들과 불교진흥원의 드러내지 않는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다. 사장 전무 상무 등 최고 경영진이 모두 공적으로 당분간 파행운영이 우려되는 불교방송이 공공성을 찾고 본래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교방송 이사회 진흥원 이사회 조계종 불방특위와 조계종 총무원장 등 4개 주체가 적극적인 사태 해결의지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적으로 책임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교계 정상화 원만한 수습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주문이다.

내년 예산 97억원 증회상정

조계종, 직영사찰 수입 상향 조정 종책사업 책정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일 총무원회의를 개최해 19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 중앙총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96억8천8백77만원으로 95년도 66억8천8백77만원으로 95년도 66억8천8백77만원에 비해 30억8천8백77만원이 인상(46.8% 증)되었다. 세입중 직영사찰 수입을 대폭 상향 조정했고, 세출에서는 종책 사업부문을 따로 책정했다.

금주 20면 발행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서명 · 16·17면

불교 전산화 특별 좌담 · 9면

목어

우유는 대다수 국민이 즐겨 마시는 식품이다. 그런데 '고름우유'라니 말만 들어도 구 역질이 난다. 우유생산업체들이 자기네 회사 제품은 '이상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서로 비방하는 공방전을 하고 있으나 어느 편을 믿을 것인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같은 논쟁은 오히려 국민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여 우유소비량을 줄일 뿐이다. 실제로 '고름우유' 시비가 계속된 1주일동안에 우유소비량이 7%나 줄었다고 한다. '고름우유' 싸움은 7년전에도 있었다. 그때 한 우유회사는 광고를 통해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신체를 물려줍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해 업체끼리 상의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사과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하여 소비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게 '고름우유'다 '아니다'를 가리기에 앞서 기업이념을 확립한 우유생산 업체들에게 '혹시 마음에 고름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실례일까. 고름주머니를 찬 사람들이 어디 우유업자 뿐이겠는가. 노쇠의 비자금 파문도 다 고르고 새살이 돌아나도록 치료할 잘 해야한다. 노쇠 비자금 비리도 그렇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부정부패' 식보다 속히 아물어 우리사회가 새로워지는 정기로 삼을 때 오늘의 울분과 아픔은 그 값을 지낸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고 경계하시면서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수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일러주셨다.

'고름주머니'를 찬 사람들

다 국민건강을 위해 업체끼리 상의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사과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하여 소비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게 '고름우유'다 '아니다'를 가리기에 앞서 기업이념을 확립한 우유생산 업체들에게 '혹시 마음에 고름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실례일까. 고름주머니를 찬 사람들이 어디 우유업자 뿐이겠는가. 노쇠의 비자금 파문도 다 고르고 새살이 돌아나도록 치료할 잘 해야한다. 노쇠 비자금 비리도 그렇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부정부패' 식보다 속히 아물어 우리사회가 새로워지는 정기로 삼을 때 오늘의 울분과 아픔은 그 값을 지낸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고 경계하시면서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수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일러주셨다.

방장스님 친견법회

◇ 해암스님 ◇ 승헌스님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국불교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조계종 종장 월하스님(통도사 방장) 친견법회를 성황리에 가진 것을 시작으로 해암사 수석사 승헌스님의 4대총림 방장스님을 친견하는 귀한 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3차 11월 18일(토) : 조계총림 송광사 승헌 방장스님
4차 11월 25일(토) : 해암총림 해암사 해암 방장스님

※ 문의 : 수미산 여행사 국내부 (전화 : 732-0181~3) 각 회차별 참가비 2만원

신행이야기를 찾습니다

11월25일 마감... 원고지 30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과인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투박한 상흔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게 되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 신행수기 공모 안내

△ 공모내용 : 생활속 신행이야기·부처님 가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마감 : 95년 11월 25일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 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참가대상 : 불지면 누구나 동참 가능
△ 당선작 발표 : 현대불교 96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유마상 : 상징,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 메달)
·공동합의회장상 : 상징,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본사 사장상 : 상징, 상금
·특별상 : 상징, 상품
·유모자지원 :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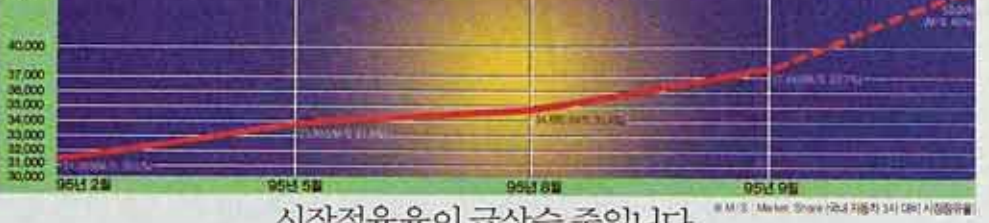
인기상승! 기아가 달린다



고객이 원하는 차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빅히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아가 점점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차종별 특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풀라인업 구축, 소비자 중심의 신차개발과 잇따른 빅히트, 세계레퍼와 세계시장에서 입증된 탁월한 품질,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똘똘 뭉친 勞와 使... 그결과, 기아차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新기술의 힘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금 기아의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를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KIA 기아자동차